

아파트 단지내 휴게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te Residents' Use at Three Rest Areas and Three Playgrounds in an Apartment Complex

최재순* 이지숙**
Choi, Jae Soon Rhee, Ji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idents' actual usage at three rest areas and three playgrounds in an apartment complex.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field study in J apartment complex in Incheon from August 14 to August 30, 1998.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were more users in playgrounds than in the rest areas. The rest area near the place for the elderly in the complex was used mainly by the elderly females. The playground located near the main entrance of the complex was frequently used because it is the biggest one in size and has an enough space for playing. Furthermore, the condition of shading areas by trees and buildings influenced the rate of use of the residents. Therefore, to increase the usage rate of rest areas and playgrounds, they should be located near to the places which have community amenities and should have accessible entrance for residents. Landscape design of the apartment complex should be done with the plot plan of the complex simultaneously. Moreover, the number and the kinds of trees to be planted in the apartment complex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심화는 심각한 주택난과 택지난을 야기하였다. 1960년대 초 마포 아파트를 비롯하여 신도시 택지개발등으로 고층 아파트는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한정된 택지위에 많은 가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도시의 현실이 경제성, 효율성에만 치중한 고층고밀도 주택건설을 하게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아파트가 단순한 잠자리와 식사장소로서의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주동과 단지에서의 사회생활을 위한 주거요구도 충족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단지내 공공공간의 중요성은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주변의 주거 환경 수준 및 자연조건, 단지내 옥외공간의 놀이 시설 및 휴게

시설이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대단히 높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박영준, 1997).

아파트 단지내 옥외공간시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거주자의 만족도를 묻거나 설계측면에서 평면을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도를 연구한 사례가 적다. 특히 현지 관찰조사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단지내 외부공간의 시설 이용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단지내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이용실태를 관찰 조사하여,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아파트 단지의 옥외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포스트 닥. 과정

II. 선행연구

한국의 아파트는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한 고층 고밀도 주택건설에 의해 인간적 척도, 접지성 부족으로 인한 소외경향의 증대, 근린성 약화, 과밀감 발생, 외부공간의 비활성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6). 이웃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다른 주거형태보다 불리한 공동주택에서는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녹지공간등의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만족도와 단지입지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주변의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교통적인 측면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통적 측면보다는 주변의 주거환경수준 및 자연조건이 더 깊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박영준, 1997).

아파트 단지의 공공공간은 휴식, 놀이, 운동,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부여하며 또한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 거주자의 행동에 따른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박형배, 1990). 특히 놀이터의 경우에는 주호면적이 작을수록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다양한 놀이 기구와 음료수대 설치를 요구하였다(변영일, 1987). 성창수(199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놀이터의 배치에 있어서 어린이가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거주자와 놀이터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양호했으며, 출입구에 따라서도 이용도가 달라짐을 보여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놀이터는 어린이의 보호자로부터 가시거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단지의 외곽이나 후미진 자투리 땅으로 밀려나 있으며(박재운, 1993), 휴게공간 역시 단지내에 주동이 모두 배치된 후에 남는 공간을 이용하여 배치되어질 뿐이다. 공공공간이라 함은 크게 근린공간과 인동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린공간은 근린공원, 운동장, 어린이공원을 말하고 인동공간은 놀이터와 휴게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공공공간중 근린공공공

간과 인동공공공간은 규모면에서 크게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설치위치로 보아 핵화형, 편중형, 편재형, 균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근린공간은 단지내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공간구조 유형인 단지 중앙에 근린공간이 있는 핵화형이 만족도가 높고 인동공간은 단지내 주거동 주변에 균일하게 배치하는 균재형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배치유형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공사, 1994).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과 면적 기준에 관해서는 대한주택공사(1996)의 단지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복리시설에 포함되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1)500세대 이상인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유아용과 유년용으로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놀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2)놀이터에는 획일적인 기준의 놀이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3)놀이터의 최소폭은 면적이 150 m² 미만인 경우 6 m 이상, 면적이 150 m² 이상인 경우는 9 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기준에 따르면, (1)100세대 이상인 경우는 300 m² 에 100세대 초과 매세대당 1 m² (시군지역은 200 m² 100세대 초과 매세대당 0.7 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본 1개소 면적은 300 m² 이상(시군지역은 200 m²)이어야 한다.

한편 휴게시설은 300세대 이상 500세대까지는 휴게시설을 1개소,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5개 이상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반면에 휴게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III. 연구 방법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선정은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가 단지내 공간 배치상 주거동 주변에 균일하게 배치(균재형)되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배치 유형이라는 선행연구(대한주택공사,

1994)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균재형으로 배치를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인천소재 만수 3지구 J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8월 14일, 19일, 22일, 30일의 주중과 주말 각각 2일에 11시부터 19시까지 매시간 30분씩 훈련된 조사자 4명이 실시하였다. 이들은 거주자들이 휴게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휴게소 및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실태를 평일과 휴일, 시간대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휴게소 및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후조건, 주변의 식재 현황,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와의 관계 등을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관찰조사결과는 장소별, 요일별, 시간대별, 연령별·성별, 체류목적별로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연령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을 유년기, 13~20세 미만을 청년기, 20~65세 미만을 장년기, 65세 이상을 노년기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휴게소 이용자의 연령을 구분하였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의 기후를 살펴보면, 최저 24.5~최고 29.6°C사이로 일평균 24.9°C, 상대습도 79%였고 풍속은 평균 2.94 %였다. 일교차는 최저 0.9°C에서 최고 2.3°C사이였으며, 풍속은 2.8 %에서 4.3 %사이로 나타나서, 조사기간 중의 기후는 여름철의 기후를 보여주었다.

IV. 조사대상단지의 일반사항

만수 3지구 J 아파트는 도시 중심지 외곽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도 비교적 편리하게 계획되어 있다.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조사대상인 J 아파트의 사전조사 결과, 거주세대는 총 1,030세대이고, 전용면적은 17평, 18평으로 가족 분포는 대체로 평균 부양가족이 2명인 젊은 세대 가족이나 부부가족, 독신자가 비율이 높았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는 8개의 주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3개씩의 놀이터와 휴게소가 그림 1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조경관리는 영선반에서 1년에 6번 수목 관리와 소독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이 잔디를 관리한다. 또 아파트 단지내의 지상주차공간은 넓고, 도로와 연결된 정문과 후문이 주차공간과 가까워서 차량의 진입이 용이했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는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활용하여 이용계층을 확대하여 어린이, 부모,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건전한 정서함양과 운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대한주택공사 설계개발부, 1992).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내 외부공간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어린이 놀이터(84.36 m²)는 아파트 주출입구로부터 가장 근접해 있으며, 근로복지관과 마주하고 있다.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그네, 구름사다리 등의 놀이기구가 있고 벤치, 꽃사과나무, 삼각단풍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섬잣나무, 잣나무가 놀이터를 둘러싸고 있으며, 파고라에는 등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제 2 어린이 놀이터(37.6 m²)는 아파트의 정문 출입구를 연장하는 서쪽 끝에 있다. 놀이터의 북쪽에는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에는 씨름장, 농구대, 배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장 밖에 개천이 있어 잠자리 등 곤충을 채집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꽃사과나무, 삼각단풍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섬잣나무가 있고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나 외진 곳에 위치하여 있다. 제 3 어린이 놀이터(29.64 m²)는 후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입구가 좁고 아파트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폐쇄적이다. 출입구 가장자리로 느티나무와 삼각단풍나무, 왕벚나무, 섬잣나무, 꽃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그들이 지는 곳은 파고라밖에 없다.

제 1휴게소(21.6 m²)는 인근 주동이 둘러싸고 있다. 삼각단풍나무, 느티나무, 섬잣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제 2휴게소(20.4 m²)는 주민 복지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벤치와 전화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꽃사과나무, 삼각단풍나무, 왕벚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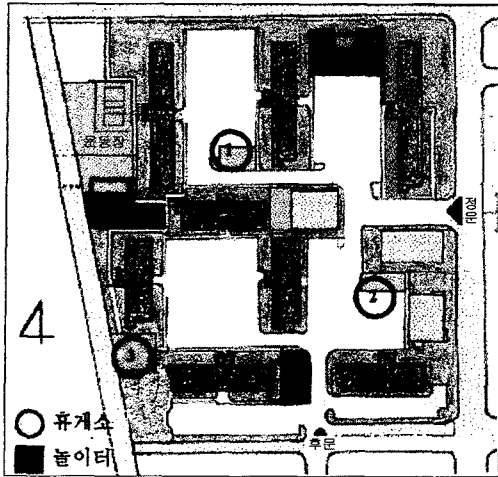


그림 1. 단지 배치도

느티나무, 섬잣나무가 있고, 파고라 건너편으로 장미정원과 많은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제 3휴게소(17.6 m²)는 그늘이 적고, 꽃사과나무, 삼각단풍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섬잣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제 2 어린이 놀이터와 연결되는 산책로에 인접해 있다. 제 1, 2 휴게소는 기존의 벤치가 배열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자 혹은 원두막과 같은, 넓은 마루 평면형으로 되어 있으며 편히 앉을 수 있는 높이로 되어 있었다. 지붕은 모임지붕 형태로 되어 있었다. 제 1 휴게소는 벤치 2개, 제 2 휴게소는 벤치 1개가 주변에 더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 3 휴게소는 등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공간에 벤치가 4개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의 벤치는 떨어져 배치되어 있었다.

표 1. 날짜별 이용자수 (단위/명)

날짜	평일			주말			평균	총원
	14일	19일	계	22일	30일	계		
1휴게소	31	102	133	60	43	103	81.5	236
2휴게소	76	76	152	31	35	66	83.8	218
3휴게소	40	28	68	55	30	85	47.8	153
1놀이터	181	203	384	119	65	184	221.8	568
2놀이터	98	184	282	127	138	265	172.8	547
3놀이터	113	65	178	32	59	91	97.0	269
계	539	658	1197	424	370	794	702.0	1991

V. 조사결과

1. 장소별 시간별 이용자수

조사기간 동안의 이용자수는 각각 14일에 539명, 19일에 658명, 주말인 22일에 424명, 30일에 370명으로 19일에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 보면 주말보다는 주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장소별로는 제 1휴게소 236명, 제 2휴게소 218명, 제 3휴게소 153명, 제 1어린이 놀이터 568명, 제 2어린이 놀이터 547명, 제 3어린이 놀이터 269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휴게소보다 놀이터 이용자가 많았다. 놀이터 중에서는 제 1어린이 놀이터가 휴게소 중에서는 제 1휴게소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조사시간별 이용자수를 비교하여 보면, 17시대에 이용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6시와 15시의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휴게소 이용자수는 전반적으로 조사시간대에 고르게

표 2. 시간대별 이용자수

(단위/명)

장소	시간								계
	11-11:30	12-12:30	14-14:30	15-15:30	16-16:30	17-17:30	18-18:30		
1휴게소	32	52	22	38	38	35	19	236	
2휴게소	28	17	23	22	35	50	43	218	
3휴게소	13	27	42	22	17	26	6	153	
1놀이터	75	49	78	92	108	96	70	568	
2놀이터	89	80	62	66	45	87	118	547	
3놀이터	20	29	42	56	59	40	23	269	
계	257	254	269	296	302	334	279	1991	

분포되어 있는 반면, 놀이터 이용자수는 15시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대인 12시와 18시에는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 이용자수가 모두 줄어들었으나 제2어린이 놀이터에서는 18시에 증가하였다.

2. 연령별 · 성별 이용자수

이용자의 연령별로 보면, 유년이 1,414명(71.01%), 장년 256명(12.85%), 노년 200명(10.04%), 청소년 121명(6.07%)순으로 나타났다. 옥외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은 유년이었고 그들은 제1어린이 놀이터(449명)와 제2어린이 놀이터(418명)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제3어린이 놀이터는 208명, 제1휴게소는 184명, 제3휴게소는 113명, 제2휴게소는 42명이 이용하였다.

관찰조사를 통하여 성별을 분류하다 보니 유아의 경우는 성별이 식별되지 않아서, 유년을 제외한 이용자의 성별을 비교하여 보면, 노년여자는 제2 휴게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장년여자는 제1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제2 어린이 놀이터와 제1휴게소를 그 다음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청소년 남자는 제2 어린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여자의 이용율이 높았고 청소년층에서는 남자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2).

3. 체류 목적별 이용자수

전체 이용자들을 체류목적별로 살펴 보면, 휴게소에서는 놀이 198명, 휴식 148명, 만남 142명, 산책 79명, 기타 36명, 운동 4명의 순이었고,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놀이 990명, 휴식 242명, 산책 92명, 만남 82명, 운동 74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제1휴게소와 제3휴게소에서는 놀이와, 산책, 휴식이 많이 나타났고, 제2휴게소에서는 만남이 많았고, 제2 놀이터에서는 놀이가 가장 많았고, 휴식, 운동, 만남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평일 이용자수 중 기타의 내용에는 청소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고, 주말 이용자수 중 기타에 있어서는유치원에서 수업을 하러 온 경우가 24명이 있었다. 장소별로 평일과 주말의 이용자수를 살펴본 결과, 제2휴게소를 제외하고, 평일과 주말 모두 놀이가 목적인 이용자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일에는 휴식과 만남이, 주말에는 휴식이 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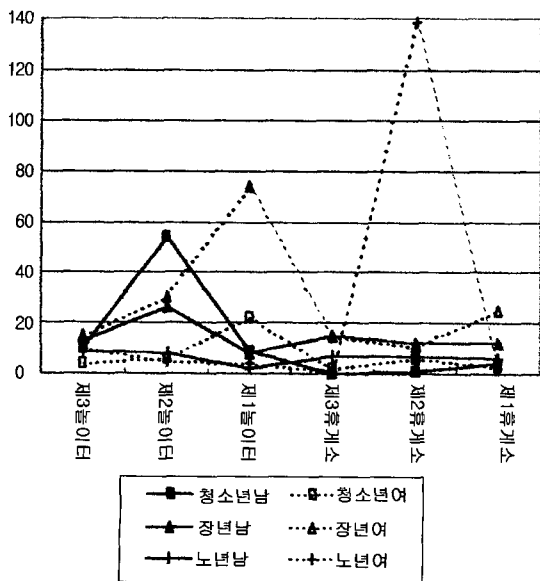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 성별 이용자수

VI. 결과 분석

1. 장소별 시간별 이용자수

장소별로 제1 어린이 놀이터와 제1 휴게소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는 것은, 먼저 제1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중 규모가 제일 크며, 놀이기구 또한 많았으며, 근로 복지관과 마주하고 있고 주출입구 가까이 위치하여 유년의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우며,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러 온 유아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놀이터내 벤치는 등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어 더운 여름철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1 휴게소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변의 주동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름철에 그늘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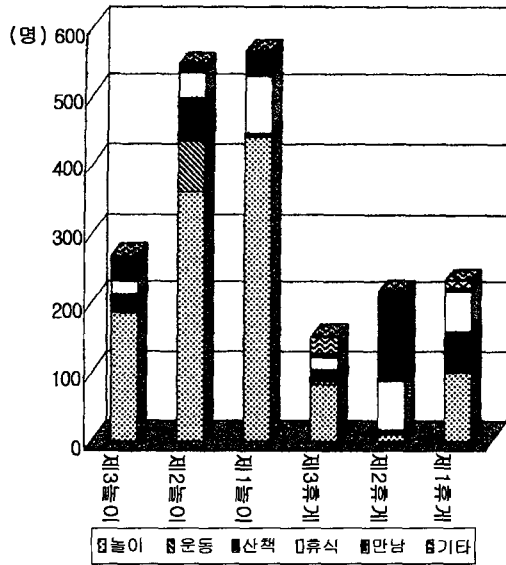


그림 3. 체류목적별 이용자수

규모면에서도 3개의 휴게소중 규모가 제일 커서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식사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있었다. 즉 이용자의 수가 많은 이유로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나 출입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또한 다양함을 보여 주었다.

즉 이용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제 1 어린이 놀이터와 제 1 휴게소는 모두 규모가 컸으며, 거주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근로 복지관 등의 주변 시설이 위치하였으며, 출입구 또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의 더운 햇볕을 막아 줄수 있는 그늘이 제공되어 거주자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제 3 어린이 놀이터 및 휴게소의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 제 3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입구가 좁고 폐쇄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위치상 남쪽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햇볕이 많이 드는 더운 장소이다. 더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놀이기구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설이 없어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 3 휴게

소는 거리상으로 아파트 단지내 휴식공간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늘을 형성할 공간이 적어 여름에 이용자수가가장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폐쇄적인 디자인과 단지내 주동과의 먼 거리 및 그늘의 부재는 이용자들을 이끌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대별로는 한여름인 8월에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더운 한낮의 열기가 사라지는 저녁시간대인 17시대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어린이 놀이터 이용자의 수가 15시 이후에 증가하는 이유로는 더운 여름철의 계절적 요인과 방학중 어린이들의 학원 등의 보충학습이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오후에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휴게소의 이용자수는 이용자의 연령층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사시간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소 모두 주말보다는 주중에 이용자의 수가 많은 이유는 여름철 휴가 등의 이유로 주말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연령별 성별 이용자수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소 등의 외부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유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휴게소에 비해 어린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전용면적의 평형이 작을수록 놀이터의 이용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변영일(198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좁은 실내보다 넓은 실외로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방학중에도 학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비해서 유년들이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이용자수의 경우, 노년여자는 근처의 노인정이 가까이 있는 제 2 휴게소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장년의 여자는 자녀의 보호자로서 유년과 함께 제 1 어린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 남자는 씨름장, 농구

대, 배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과 연결된 제 2 어린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놀이기구의 이용보다는 실제로 운동장의 이용을 위한 매개공간으로써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청소년보다는 유년이 아파트 단지내 외부 공간의 어린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남자는 운동장과 연결된 제 2 어린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 실태결과로 보아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 및 놀이시설을 제공해 주어 주거환경이 이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린이 놀이터의 계획에 있어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놀이기구와 공간의 설정이 달라져야 하겠다.

3. 체류목적별 이용자수

3곳의 휴게소와 3곳의 어린이 놀이터 모두에서 놀이 목적의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년의 연령층이 모든 외부공간에서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더하여 제 1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 곳의 놀이터가 더운 여름철에도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하므로, 놀이기구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휴게소를 놀이장소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어린이 놀이터는 앞서 언급한 아파트 단지내 가족놀이시설에 의거해 계획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산책과 운동 목적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이 다른 곳보다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년의 이용자는 놀이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제 1 휴게소와 제 3 휴게소에서는 만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수가 많았다. 제 1 휴게소에는 여름에도 이용이 가능한 충분한 그늘이 있었으며 제 3 휴게소는 산책로와 인접해 있어 만남의 목적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

주자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끌기 위해서 공간 구성은 그늘지고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휴게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어 건전한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러한 공간은 주말에는 휴식의 목적으로 찾는 이용자들도 많으므로, 충실한 휴게소의 계획 및 설치에 주거가 재생산을 위한 휴식의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V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천시 만수 3지구 J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소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이용실태를 현지관찰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만수 3지구 주공 아파트를 관찰 조사한 시기는 1998년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주중 주말 각2일씩 총4일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의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소를 이용한 사람수는 14일 539명, 19일 658명, 22일 424명, 30일 370명이었다. 대상공간 중에서 제 1휴게소, 제2휴게소, 제 3휴게소, 제 1어린이 놀이터, 제 2어린이 놀이터, 제 3어린이 놀이터 중 제 1어린이 놀이터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제 3휴게소가 가장 적었다. 휴게소보다는 어린이 놀이터가 월등히 더 많은 이용자수를 보였으며, 요일별로 비교해 보면 평일에 이용율이 많았다. 이용목적별로 분류하여 보면, 놀이가 가장 많지만 예외적으로 제2휴게소에서는 만남이 많았다. 시간별로는 제1휴게소가 정오, 제3휴게소가 오후 2시, 기타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보였으며, 연령별·성별로 보면 제2휴게소는 노년 여자가 가장 많고, 나머지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는 유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휴게소 벤치에는 차양이 없어서 벤치가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파고라만 이용되고 있었고, 따라서 휴식을 위한 것보다는 놀이를 목적으로하는 유년의 활용도가 높았다. 제 2휴게소의 경우는 사방으로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타공간보다 그늘이 많고, 공간배치상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년여자 및 상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게소를 들렀다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공간과 벤치, 파고라가 부족하여 휴식을 하기보다는 잠깐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 제3휴게소는 근처에 있는 개천에서 채집을 위해 돌아다니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 이곳도 벤치가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가장 적은 인원수가 이용하며, 휴식하기 위해 이용하기엔 단지와의 동선이 길어 불편하였다. 따라서 쉬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유년이가 가장 많았다.

제 1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다른 놀이터보다 단지에 많이 개방되어 출입이 편하고 면적도 가장 커서,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 중 이용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는 위험처리시설과 놀이시설이 공존하고 있고, 외곽도로 쪽 수고가 낮아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놀이터의 구석 그늘 밑에서 놀이를 하였다. 제 2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놀이터 옆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고, 뒤쪽에는 개천이 있어 공놀이나 채집 등 어린이들이 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치우쳐 있으며, 놀이기구 사용공간이 좁고, 햇볕에 노출되어 있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보다는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 등의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제 3 어린이 놀이터도 놀이를 하는 유년이가 가장 많았으나,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놀이기구에 비해 장소가 너무 좁고, 주동과 떨어져 있어 그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더운 여름에 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적은 인원의 이용자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출입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외부공간이 이용자가 많았으며, 또한 계절적으로 여름의 강한 햇볕을 차단시켜 줄 그늘이 형성되어 있는 장소가 이용률이 높았다. 휴게소 및 어린이 놀이터에는 모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수령이 적어 충분한 그늘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충분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유실수가 많아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자연의 결실 및 계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수종으로 계절감 역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놀이터에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수목의 선택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 1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는, 유년과 보호자의 이용이 많은 것에 비추어 놀이터의 위치는 거주지에서 보호자의 가시거리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놀이터내에 충분한 벤치 공간을 두어 놀이를 지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에 더하여 자녀의 보호뿐 아니라 또다른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 2 어린이 놀이터와 제 3 휴게소의 경우처럼, 주변에 운동장 및 산책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주자들이 많았으므로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놀이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거주자들의 사회적 접촉을 유도하며 건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편, 이용시설의 물리적인 조건이 이용빈도와 패턴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 내의 주동 건물과 건물사이의 놀이터와 휴게소는 건물이 만들어주는 그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대별 이용인수가 가장 많았다. 둘째, 휴게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위주로 한 연구로 제 2 어린이 놀이터에 인접한 운동장에서 노는 어린이에 대한 관찰이 빠졌는데 유년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운동장에서 많이 놀고 있었다. 셋째, 한여름에는 휴게소의 이용인원이 적는데 이것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는 요소보다 꽃이나 관상용 가치에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VIII.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아파트 단지내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의 활성화화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가 단지내 적절한 공간에 배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계획시 처음부터 주동배치 계획과 함께 놀이터와 휴게소와 같은 인동공공공간의 공간배치의 계획이 병행되

어야 하겠다. 둘째, 놀이기구를 여러 사람이 적절히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셋째,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 모두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늘이 형성되도록 차양시설 및 식재를 선택하여야 하겠다. 수목의 종류 선택시 그늘을 위한 수목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 놀이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수목에 대한 조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 및 봄과 가을에도 관찰조사를 실시하여 1년동안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4계절에 따른 휴게소 및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실태의 심층 분석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아파트 단지내의 공공공간 이용실태 및 거주자의 만족도와 요구를 연계하여 다수의 심층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조사가 8월중 4일동안 11시에서 19시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본 조사의 결과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 확대하여 해석,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대한주택공사(1994). 단지계획기준.
2. 대한주택공사 설계개발부(1992). 아파트 단지내 가족놀이시설, 환경과 조경, 39호.
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2). 아파트 단지내 가족놀이시설, 환경과 조경, 46호.
4. 박영준(1997). 아파트 단지내 옥외공간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경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재운(1994).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형배(1990). 입주자 만족도를 고려한 집합주택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인천지역 Apt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변영일(1987). 집합주거 단지내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성장수(1990). 집합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接受 : 1998. 12. 22)